

‘한반도의 봄’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제언

Online Series

2018. 05. 04. | CO 18-16

이 우 태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봄’을 이끄는 훈풍역할을 하였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확대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 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성확보를 위한 남북 간 제도적 합의,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컨트롤타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구체적 로드맵 구성을 통한 전략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는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 국민 모두가 불안감을 느꼈지만 현재는 ‘한반도의 봄’을 이야기하며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봄’은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남북 스포츠 및 문화예술교류로 시작되었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방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스포츠 및 문화 예술분야가 남북관계 개선에 끼친 영향과 파급효과를 직접 목격하였다.

우선 스포츠 분야는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17년 6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기점으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동 기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여 남북대화 재개의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스포츠분야에 이어 남북 예술단의 상호방문 공연은 남북관계 발전에 귀중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은 한국 국민에게 각인되어있던 기존의 딱딱하고 경직된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봄이 온다’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대립적인 정치제도와 이념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예술단의 성공적 공연은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한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판문점 선언과 사회문화교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화예술분야는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훈민정음과 민정기 작가의 작품 ‘북한산’의 기법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어 정상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회담 이후 만찬 석상에서의 공연은 남북이 동일한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스포츠 및 문화예술 분야는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 당일까지 당국 간 관계는 물론 회담 당사자들 간의 긴장을 풀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스포츠 및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판문점 선언’에도 향후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남북 정상 간 합의되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통해 오래기간 분단과 대결로 인해 발생한 남북한 국민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사회문화교류가 단순히 한 계층 또는 한 진영의 행사가 아닌 민족 전체의 화합의 장이 되게끔 하였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확대에 대한 합의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시점에서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남북 간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현가능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의 확대

남북 정상은 ‘관문점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6.15, 8.15, 10.4 등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6.15행사 같은 경우는 국내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열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상징적 수준이라도 6.15의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변화를 고려할 때, 8.15 남북공동행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5월말에서 6월초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8.15 남북공동행사가 해방 당시 남과 북은 분단되지 않고 하나였던 점을 상기하며 행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교류의 경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점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분야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체육 강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스포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평양과 각도에 축구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종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분야는 8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개최되는 2018 아시안게임에 남북 공동입장과 종목 별 단일팀구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1999년 열렸던 통일농구대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는 현대그룹 계열 남녀농구팀과 북한의 남녀농구팀이 서울과 평양에서 경기를 벌였으나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참가 전에 남북 남녀국가대표팀이 서울과 평양에서 친선경기를 벌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아울러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리설주 여사와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두 분(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이 전공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 문화예술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북한 은하수관현악단에서 활동했던 리설주 여사는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답함으로써 향후 예술분야의 남북교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 감독이 북한 국립교향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을 지휘한 사례에 비추어 남북 지휘자가 번갈아가며 남북 교향악단의 합동공연을 지휘하는 행사도 추진해볼만 하다. 또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와 함께 남북 간 역사와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추진되다 중단된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이나 거래말 큰사전 편찬사업들의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타 남북교류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전의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회문화교류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남북 간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어왔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남북사회문화협정’ 또는 ‘사회문화교류협력 합의서’체결을 통해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주도할 전담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일명 ‘사회문화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물론 교류사업 전체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류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직성과 정치적 민감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교류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단순히 일회성, 단발성 사업이 아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주체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계적, 점진적 교류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지자체와 사회문화 단체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 제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는 모든 사업이 의미가 있고 추진가치가 있지만 사회문화분야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위원회'에서 교류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북한과 교류가 용이한 단기사업과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을 구분 짓고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하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갔고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은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훈풍 역할을 하였다. 지난 남측 예술단의 방북 공연 시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제안했다. 가을은 봄과 여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추수의 계절이다. 남과 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가을이 왔다' 공연이 명실상부한 남북관계의 추수를 축하하는 공연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